<table>
<tr><td>작품명</td><td>누나, 불씨 붙었어요</td><td>장르</td><td>성인 로맨스</td></tr>
<tr><td>작가명
연락처</td><td>퍼센티지
a01065006206@gmail.com
010 4891 6206</td><td rowspan="2">키워드</td><td rowspan="2">#현대물 #동거 #조직/암흑가 #나이차커플 #연하남 #절륜남 #직진남 #존댓말남 #유혹남 #상처녀 #사이다녀 #직진녀 #냉정녀 #단행본</td></tr>
<tr><td>예상 완결
분량</td><td>2권</td></tr>
<tr><td>소개글</td><td colspan="3">“넌 이런 아줌마랑 섹스해서 뭐가 좋니.”
“나보다 누나가 좋겠죠. 잘 익은 영계 따 먹어서?”
“김무혁.”
“누나, 제일 기분 좋은 건, 섹스 하고 나서 피우는 담배래요.”

연애만 10년. 그 중 죽도록 미움을 받은 시간만 7년을 넘는다.
사랑보다 무서운 것이 정이라고, 그깟 정으로 10년을 보냈다.

“라이터 빌려드릴 테니까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끌고 가기 전인데 담배 불도 붙여주네.”
“원래 죽기 전에 피우는 담배가 두 번째로 맛있대요.”

끌어올 수 있는 대출을 모조리 써다 바치고, 밀려오는 카드값에도 선뜻 빌려주었다. 그러다 안 되니 사채에 보증까지 써준 결과는 통보 없이 모습을 감춘 연인.

그 후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 사채업자. 밀린 이자를 갚고, 또 갚다가 희망이 안 보이니 기어코 목을 따러 온 모양이다.

“질문이 뭔데?”
“진짜 궁금해서요. 사채에 보증까지 해줬는데 도망간 놈을 왜 기다려요?”
“불쌍해서.”
“재밌는 누나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불쌍해서라니.”

목을 따려는 사람이 인상은 말갛게 생겼길래 의아했다.
그런데, 목이 아니라 몸을 따려는 구렁이 새끼일 줄은 몰랐다.

“내가 걔 가족을 죽였거든.”

하지만 구렁이 새끼 조차 모른 사실이 있다면, 따먹으려는 몸 주인이 살인을 한 전과가 있다는 것이다.</td></tr>
<tr><td>로그라인</td><td colspan="3">오랜 시간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던 여자가
사채업자인 남자를 만나고 서로 의도치 않는 구원을 하게 되는 이야기.</td></tr>
</table>

주요 등장인물	**최지효** **여자 주인공, 30대 초중반 (30~35)** **"몸으로 갚으라는 말은 너무 구시대적 대사 아니야?"** **설정: 세상만사 다 살아본 눈빛. 입는 옷과 먹는 것도 늘 남이 쓰던 것과 남이 먹다 남긴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연명할 수 있는 일상.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내고 자란 임효재와 스무 살 때 연애를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3년이 지난 후 7년이 넘도록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 정확히는 당해줬다.** 바람을 피우든, 원나잇을 하든, 하다못해 빚을 지든 전부 다 받아줬다. 혀를 차며 말리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인간관계에서 남은 건 효재 뿐이다.** 왜 그렇게 임효재를 감싸주지 못해 안달이야? 라는 친구의 마지막 질문에 지효는 입을 다물었다. 태어날 때부터 키워준 할머니가 예뻐하던 게 효재였고, 할머니의 장례식 때 옆에 있어준 것도 효재였다. 삶이 너무 고달파 그를 밀어낼 때면 꿋꿋히 기다려준 것도 효재였다. 그리고 그런 **효재의 하나 뿐인 가족이자 밤새 술주정을 하며 효재를 때린 아버지를 죽인 건 자신**이었다. 집 안에서 주정 부리다 못해 밖으로 끌고 나와 동네 자랑 하듯 때리던 그 순간. 지효는 말려야겠다는 마음과 이럴 거면 죽어버리지 라는 마음이 동시에 피어났다. 그리고 하필 말리던 중 그의 아버지가 계단에서 굴렀다. 뇌출혈로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던 효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보란 듯이 지효를 좀먹기 시작했다. 한 번의 손찌검은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울었지만, 두 번째부터는 없었다. 남자친구의 가족을 죽인 것도, 남자친구가 원나잇 했다가 에프터가 안 되어 돌아왔을 때 받아준 것도,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폭력을 기꺼이 맞아준 것도 자신이었다. 그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 스스로 한 선택의 후회는 없어야 했다. 또한 **살 의지가 없다고 해서 죽어서도 안 된다. 효재가 혼자가 되어버리니까. 효재 만큼은 최지효가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만, 지금 혼자가 된 건 자신이었다. **자신 앞으로 보증과 사채를 다 써버린 뒤 홀연히 사라진 효재. 그리고 남겨진 최지효. 사채업자가 찾아왔을 때**는 이렇게 죽나 싶었다. 선택의 후회는 없어야 하니까 기꺼이 받아드리자 라고 또 선택한 참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대가리로 보이는 어린 남자와 몸을 맞대게 될 줄은 몰랐다.** **성격 키워드:** 경계심이라곤 보이지 않는다. 세상만사 다 산 얼굴과 눈빛. **누군가 거친 말을 내뱉어도 똑같이 되돌려 줄 뿐 상처받지 않는다.** 곁에 사람이 오래 머물면 어색함을 느낀다. **할 말을 다 내뱉어도 후련해 보이지 않는 분위기**. 마치 도살장에서 자신의 끝을 예감하는 개처럼 보일 정도이다. 그럼에도 자꾸만 자다 깨는 이유는 자신을 버리고 사라진 연인이 돌아올까 싶어서다. 폭력과 바람이 일상인 남자친구를 익숙하게 받아주는 자신. 그런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든다. 모든 결과가 생긴 건 결국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후회하는 순간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비참하게 여기고 싶지 않았다.** **특징:** **1. 직업** 번듯한 직업은 없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걸 전부 돌려가면서 했다. 편의점 오전/오후/야간 파트 전부 해보았고, 식당도 서빙부터 설거지, 짬 처리까지 다 했다. 식장부터 뷔페 서빙 알바, 공장 포장 알바까지. 지금은 **회계 관련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이름만 인턴이지 아르바이트나 다름 없다. 법인카드로 쓴 영수증을 정리하고, 퀵을 받고, 서류를 인쇄하거나 정리해서 나누는 일을 한다. **한 달 뒤 계약이 만료 예정**이다. **2. 버릇** 식당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긴 버릇. **남이 남긴 음식을 기꺼이 먹는**

	다. 먹다 남은 흔적이 있어도 배곯는 것보단 낫다는 판단이 습관으로 자리잡았다. 몰래 먹다가 들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폐기가 나오면 모조리 쓸어가고, 그걸로 식중독을 앓은 법이 더러 있다. 방금 퇴근을 찍었는데도 뒤에 사람이 못나온다거나, 대타를 부탁하면 기꺼이 한다. **몸이 축나도록 일에 매달리는 편**이다. **3. 빚** 자신이 쓰려고 혹은 써야 할 상황이라 빚을 만든 적이 없다. 임효재를 대신해서 진 빚이 은행으로 1억 2천. 카드사로 3천 2백. 사채로는 4천+이자가 있다. 이자를 밀리지 않고 내려 애쓰지만, 도통 쉬운 일이 아니다. **4. 주거지** **서울특별시 윤화동(가상)에 거주**하고 있다. 재건축 문제로 시시비비했던 동네이나, 여전히 재건축 해결은 되지 않은 상태. 동네 사람들 말로는 정부나 구청이 이 동네를 포기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이다. 그 정도로 **동네의 치안이나 질이 좋지 않다.** 인터넷상에는 사창가로 유명한 동네를 치면 윤화동이 바로 뜬다. 최지효는 윤화동에서도 언덕과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집에 살고 있다. **워낙 낡고 허름한 집이라 여름엔 덥고 겨울엔 몹시 춥다.** 보일러 값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여름에 선풍기는커녕 겨울에 따뜻하게 잔 적이 없다. 그 탓에 늘 찬물로 샤워한다. 돌아가신 할머니와 살던 집이며 자신의 명의로 돌리게 된 것이라 월세 걱정은 없다. 하지만 **빚 때문에 이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다. **욕망: 임효재를 향한 감정이 '사랑'이라고 여전히 믿는다.** 사실 사랑보다는 정이고, 정보다는 **불쌍하다 여기는 동정에 가깝다.** 그리고 그런 효재를 구원하는 게 자신이여야만 한다는 어리석은 책임감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키워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이란 것에 대한 선망이 있다. **자신이 한 선택을 틀리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으나, 스스로도 무언가**

잘못 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군가 깨트려주길 바라면서도 깨지지 않길 바라는 양면성의 욕망이 존재**한다.

김무혁

남자 주인공, 20대 초중반 (22~25)

"구시대적인 대사가 아직도 먹히는 이유를 알아요? 맛있으니까."

설정: **20대 초중반. 장언 건설의 핵심적인 인물**. 불법적인 일이 돌아가는 걸 감시하고, 무언가 잘못 되면 바로잡는 것에 나선다. 중**심 인물의 왼팔 격이 되는 사람.** 주로 돌아다니는 곳은 도박장, 사창가, 인변이 드문 마을이나 섬 같은 곳이다. 서류를 처리하는 일보다는 직접 현장에 나가가서 사람을 휘두르고, 명령에 움직이는 것에 더 익숙하다. 그리고 최근에 떨어진 명령은 **이자가 몇 차례 밀리고 있는 한 여자를 찾아가 감시하라는 것.**

협박도 아니고, 물건을 깨부수는 것도 아니고 감시하란다. 회사 입지를 다지는 중심 인물, 즉 자신의 선임이 여자를 만나더니 성격이 온순해졌나 싶었다. 알고보니 전만 해도 이자를 꼬박 꼬박 잘 갚던 사람이었다. **갑자기 이자가 밀리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감시로 자신을 붙인 것**이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여자다. 생기도 없고, 눈빛이 죽어있다. 저런 사람이 꼭 하룻밤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착실히 일한다. 그리고 새벽마다 자꾸 집 앞에 나와 어슬렁거린다. 꼭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관찰에 가까운 감시를 한 지 거진 한 달이 되어갈 쯤 새로운 명이 내려왔다. 여자 앞에 직접 나서도 된다는 명이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낯이 익다. 어디서 본 적이 있던가.**

성격 키워드: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능글 맞다.** 천연덕스럽고, 말 한 마디를 줄타기 하듯 사람을 긁다가도 느슨하게 넘어간다. 타고난 입 털기 덕분인지, 늘 웃고 있는 얼굴 때문인지. **확실한 건 자신의 얼굴이 사납지 않다는 걸, 목**

	소리가 신뢰감을 주는 편이라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안다. 그걸로 상대방을 이용한다. 그게 잠자리든, 돈이든, 무엇이든. **좋게 말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고, 나쁘게 말해서 약삽하다.** 자신이 믿을만한 중심대를 두고, 그 중심의 명을 따르는 것에 대한 희열감을 느낀다. **천성적인 사냥개 스타일.** 사랑보다는 일이 주는 쾌락이 크다. 그런 탓에 **연애보다는 하룻밤을 보내는 게 더 좋다.** 파트너까진 됐어도 연인을 둔 적은 없다. 같이 도망가자거나 옆에만 있게 해달라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진절머리가 나서 선을 그은 건 김무혁이었다. 그렇게 제 곁에 있고 싶다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보라고 몇 번이나 칼을 쥐어주었다. 시늉조차 못하고 도망간 사람이 몇이더라. 그런데, 이 여자는 정말 시늉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길 것 같다. 자기가 죽어야 연인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하겠단다. 도대체 사랑이 뭐라고, 연인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한단 말인가. **궁금해졌다.**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 있나? 연애를 시작하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던가. 마음을 주려니 거짓인 게 티가 난다. 그렇다면 몸부터 밀어붙여 보려는 재미가 생겼다. **어쩌면, 이 여자가 자신에게 일보다 더 큰 흥미를 줄 지도 모른다.** **특징:** **1. 직업** 장언 건설 팀장으로 처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행동파로 나서는 **깡패**나 다름없다. 주로 현장에 나타나서 지휘를 하고, 움직이는 편에 속한다. 회사에 나타날 때는 보고를 올리거나, 직접 연락이 왔을 때 뿐이다. **2. 차림새** 회사의 명대로 **정장**을 차려 입지만 어딘가 풀려 있다. 넥타이를 안 한다거나, 편한 운동화를 신는다거나 혹은 셔츠 단추를 꽤 풀어놓는다. 그렇게라도 빼입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맞춰 입으면 답답해 하는 스타일. **양쪽 팔에 손목 바로 위부터 쇄골까지 이레즈미 문신** 있다. 회사에 들어온 뒤 큰 성과를 내고 스스로 주는 선물로 했다.

	3. 과거 **군휴학 전과 후로 삶이 완전히 바뀐 스타일.** 대학교를 다니며 삶에 무료함을 느낀 후 군휴학 뒤 입대했다. 그때 현재 다니는 회사 사람과 알게 되었고, 전역 후 자퇴하며 뒷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케이스. **고등학생 시절부터 최지효와 안면이 있다. 고등학교 입시 학원에서 알바 하는 최지효를 처음 보고, 대학교에 들어간 뒤 최지효를 본 적이 있다.** 교양 시간에 함께 조 인원이 되었었는데 그때 최지효와 자료수집 담당이었다. 수수하고, 생기가 있던 과거 지효와 현재 지효를 전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당시 지효에게 눈길이 갔었지만, 현재까지 연인인 효재로 인해 마음을 바로 접었다. 욕망: 흥미를 이끄는 것에 바로 행동을 옮긴다. 도망친 연인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는 최지효에게 끌리고 있다. **협박하러 찾아온 입장인데도 자신을 철부지 어린애로 보는 최지효가 궁금하다.**
시놉시스	<u>기</u> **"누나가 하고 있는 건 사랑도, 동정도 아니라 죄책감이에요."** **"10년을 알고 지낸 내가 잘 알까, 하루이틀 본 네가 잘 알까."** **"내가 잘 알아요."** **"무슨 자신감이니."** **"자신감이 아니라 정답이죠. 보여줄게요. 누나가 틀렸다는 걸요."** 회계 관련 회사로 단기 알바를 시작한 최지효. 일주일도 안 되어서 연인인 임효재 연락이 끊겼다. 부재중이나 연락을 남겨도 답장이 오지 않는다. 일주일이 지나서 연락을 취해보니 없는 번호라는 음성만 돌아온다. 이번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몇 주, 아니면 몇 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단기 알바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도 돌아오지 않는 연인. 기어코 자신을 떠난 걸까 회의감에 잠긴 최지효 앞에 김무혁이 나타난다. 한 달 가까이 누군가 감시한다는 걸 알아차린 최지효. 결국 사채업자 손에 죽는구나 채감하지만, **김무혁이 생뚱 맞는 걸 제안한다. 최지효가 하고 있는 건**

동정도, 사랑도 아닌 죄책감이라는 걸 알려주겠다고. 최지효는 자신의 사랑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김무혁의 불장난을 기꺼이 같이 해주기로 한다.

김무혁의 최지효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그녀와 가까워진다. 회사가 끝나면 데리러 온다거나, 심적으로 무너질 때를 이용하여 다가간다. 처음부터 몸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대화부터 시작해서 위로로, 조언으로 하나씩 그녀의 벽을 허물어 간다.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하주는 무혁의 모습에 지효는 마음이 동하지만 표면적으로 계속 거리를 둔다.

승

"넌 내가 틀렸다고 했지. 틀린 건 너야, 무혁아."
"누나.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소리를 한 거야."

가까워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이 효재한테 바친 것이 죄책감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지만 자꾸만 자신의 곁에서 안까지 침투하는 김무혁에게 흔들린다. **최지효는 자신이 아닌 김무혁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선뜻 먼저 잠자리를 제안**한다. 홧김에 던진 제안으로 임효재와 숱하게 나눈 잠자리와는 사뭇 다른 걸 느낀다. 거칠지만 다정한 그의 모습에 허물 없이 무너진 최지효는 아주 오랜만에 눈물을 쏟아낸다.

최지효와 가까워질수록 평소와 다른 희열감을 느끼던 김무혁. 무언가 잘못 되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게 사랑인지는 알지 못한다. 자신을 어린애로 취급하는 최지효가 미우면서도 싫지 않다. 김무혁은 최지효를 곁에 두기 위해 자신이 머무는 집으로 오는 걸 제안한다.

언제까지 연인을 기다릴 것이냐며 자극을 하고, 애인이 나타날 때까지만이라도 곁에 있어보는 건 어떻겠냐며 최지효에게 덫을 던진다. 그리고 **최지효는 일주일이라는 조건을 걸고, 김무혁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짧은 일주일 동안 몇 번이고 몸을 섞던 두 사람. 그리고 최지효는 일주일 뒤에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다짐한다. 최지효는 김무혁에게 자신이 왜 임효재를 떠나지 못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털어놓는다. **최지효의 서사와 속마음을 듣게**

	된 김무혁은 과거 그녀와 안면이 있다는 걸 떠올린다. 그리고 최지효의 이야기 중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녀 몰래 뒷거래를 시행한다. **전** 사채와 보증은 임효재가 사라지고, 최지효 앞으로 되어 있었기에, 임효재를 찾을 필요를 못느꼈지만 지금은 달랐다. 뒷거래를 통해 김무혁은 자신이 심은 여자로 임효재에게 접근하도록 시킨다. 슬슬 집으로 돌아갈 타이밍을 재던 임효재는 자신에게 다가온 여자에게 쉽게 넘어간다. 그리고 **김무혁은 최지효의 할머니가 임효재의 계획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일주일이 지나고, 최지효가 집으로 돌아갈 때를 맞춰 음성 파일을 보낸 김무혁. 집 근처에 도착할 때 음성 파일을 듣게 된 최지효. 최**지효는 음성 속 여자와 임효재의 대화를 통해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도어락을 누르자마자 열린 문. 문을 열어준 건 언제 왔는지 모를 임효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임효재를 보고 이성적으로 대화하기 힘든 최지효.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대하는 모습에 최지효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묻는다. 그리고 **임효재와 몸싸움을 가장한 폭력을 당하는 최지효.** 하지만 **지효는 폭력을 당하는 순간에 김무혁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맞서 대응**한다. 강압적인 성행위를 당하기 직전, 반항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구타 당하게 된다. 도착한 김무혁과 무리의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는 최지효. 최지효는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곁에서 간호하며 지키고 있는 사람이 김무혁이라는 걸 알게 된다. **결**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상과 임효재가 자신을 이용하며 곁에 두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드리기 힘든 최지효. 김무혁에게 음성 파일을 준 이유에 대해서 묻자, 알아야 될 사실이었으며 자신이 알고도 숨기는 건 옳지 못했다는 답변을 듣는다. **기고만장 했던 평소의 모습과 다르게 자신의 눈치를 보는 김무혁의 모습이 낯선 최지효. 최지효는 퇴원하면 떠날 것이라 당부한다.** 그리고 그녀의 통보에도 수긍하는 김무혁.

	빚을 전부 상환해야 했으나, 임효재가 코인과 주식으로 번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김무혁. 임효재가 전부 빚을 상환 했기에 최지효는 자유라는 걸 알게 된다. **생각보다 허탈하게 마주한 자유에 최지효는 퇴원 직전 홀연히 사라진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를 그녀를 기다리는 김무혁. 그녀를 하염 없이 기다리며, 호기심에 시작한 불장난이 사랑이었음을 깨닫는다**. 2년 후, 1년만 해도 최지효를 마킹하던 김무혁은 그녀가 잘 지내는 모습에 마킹마저 하지 않기로 한다. 거진 2년이 넘도록 1인 가구로 홀로 살아가던 최지효. **그녀는 우연히 알바 했던 학원 원장과 마주치게 되고, 그를 통해 김무혁과 과거부터 안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 사실을 안 최지효는 김무혁의 집으로 찾아간다. 그리고 일주일 생활 하는 동안 자신에게 주었던 마스터키 카드를 찍는다. 일에 매진하던 김무혁은 한 달 넘도록 집을 비우고 있었고, 오랜만에 귀가 했을 때 최지효와 마주한다. **집 카드를 돌려주러 왔다는 말과 함께 돌려주지 않아도 되냐도 묻는 최지효.** 김무혁은 심적으로 고생 했는지 수척한 모습으로 웃으며 **'돌려주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최지효는 '네가 이겼어. 내가 틀린 거였으니까.' 라며 인정한다. 시간이 흘러 오랜만에 재회한 두 사람의 모습**으로 마무리 된다. **<u>외전</u>** 1. 재회 후 같이 살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

로맨스 가이드 (리디 플랫폼 참고)

남자 주인공	**김무혁**	구렁이가 사내 모양새를 한다면 딱 이럴 것이다. 깡패들이 모여 자수성가한 장언 건설의 핵심적인 행동파 인물. 자신이 믿을만한 중싱대를 두고, 명을 따르는 것에 희열감을 느끼는 천성적인 사냥개 스타일. 사랑보다는 일이 주는 쾌락이 크던 남자. 그런데, 이 여자는 궁금하다. 사랑에 빠지면 목숨까지 바치는 게 가능한가? 억대의 빚을 갚아주는 게 가능할까? 어쩌면, 이 여자가 자신에게 일보다 더 큰

		흥미를 줄 지도 모른다.
여자 주인공	**최지효**	세상만사 다 살아본 얼굴을 가진 여자. 입는 옷과 먹는 것도 늘 남이 쓰던 것과 남이 먹다 남긴 것이 익숙하다. 그렇게 해야만 연명할 수 있는 일상을 굴리고 있다. 10년간 만나고 있던 연인에게 7년이 넘도록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 정확히는 당해줬다. 빚도 보증도 다 자신의 앞으로 해주고 있다. 그의 가족을 자신이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수하던 일상 속에 그 연인이 돌연 사라졌다. 빚더미만 자신에게 안겨준 채로.
이럴 때 보세요	건조한 일상 속에서 시작한 불장난으로 서로를 구원하는 고수위 연애담이 보고 싶을 때	
공감 글귀	“누나. 제일 기분 좋은 건, 섹스 하고 나서 피우는 담배래요.”	